

## ‘기술적 전환’을 반영하는 한·중 통역 연구 비교 분석

장 애 리  
(이화여대)

### 1. 서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전통적인 구조를 변혁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과 기술이 경계를 초월하여 연결되고 결합하는 ‘융합(Convergence)’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 및 적용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자리 잡고 있는데, 통역과 번역계도 이로 인해 ‘기술적 전환(Technological turn)’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번역의 경우 사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규칙기반과 통계기반 방식을 적용한 기계번역 연구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번역 품질의 한계로 발전의 정체를 겪었다. 그러나 2016년을 기점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딥러닝을 구현하는 (인공) 신경망 기반의 번역엔진이 도입되면서 번역 품질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본격적으로 기계번역, CAT, 클라우드소싱 번역 등 번역의 기술적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장애리 2019: 167).

다만 통역의 경우 기계통역의 실현을 위해서는 텍스트 중심의 번역과 달리 번역엔진뿐 아니라 음성인식과 음성합성 기술의 발전이 동반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적어도 국제회의 실무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기계통역이 적용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이례적이어서 통역 분야의 기술적 전환에 대한 논의와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 이후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 기계에 의해 인간 통번역사가 대체될 것이라는 보도가 난무했으나 현실 상황에 기반한 보도라기 보다는 전망과 추측성 보도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통역 시장 상황이 급변하여 구미와 호주 등 지역에서 커뮤니티 통역을 중심으로 일부 원격통역을 진행해 왔던 통역사들을 제외하고, 전 세계 통역사들은 원격통역이라는 낯선 세계에 갑작스럽게 소환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통적인 통역 업무에 기술적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번역에 이어 통역에서도 본격적인 기술적 전환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통역 실무 측면에서 기술적 전환에 속도를 내며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중국<sup>1)</sup>과 팬데믹 이후 기술적 전환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연구 동향을 양적 및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첫째, 기존의 한·중 통역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적 전환’ 관련 연구의 동향과 거시적 흐름을 파악하고, 둘째, 향후 통역의 ‘기술적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에서의 기술 적용과 관련 연구의 양적 증가 및 질적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통찰을 얻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 2.1 통역과 기술(Interpreting and Technology)

통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의사소통으로 음성 등 정보의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기술의 발전은 통역의 발전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왕화수와 양청수(王華

1) 중국의 통역 실무 관련 기술적 발전 현황은 장애리(2019) 「중국의 인공지능(AI) 통역 발전 현황 분석」 연구 참조.

樹, 楊承淑 2019: 71)는 통역에 사용되는 기술, 즉 ‘통역 기술(口譯技術)’에 대해 “통역 수행과 통역 훈련 그리고 통역 과정을 지원하고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통역 기술의 역사를 크게 배태기, 맹아기, 상승기, 폭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王華樹, 楊承淑 2019: 70). 왕화수와 양청수(2019: 70)에 따르면 배태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무선전파와 음성전송기술의 발전 및 전화기의 발명으로 대규모 국제회의에서 순차통역이 가능하게 되어 순차통역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맹아기는 1920년대에서 50년대로 1920년 초 미국의 사업가 에드워드 필리네(Edward Filene)가 오디오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중에게 통역 음성을 전달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후 영국의 엔지니어 고든 핀리(Gorden Finley)와 협력하여 동시통역의 원형이 되는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를 다시 IBM이 Hushaphone의 형태로 개조하고 부단히 기술 발전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1945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처음으로 동시통역이 이루어졌다. 또한 왕화수와 양청수(2019)는 1950년대-2000년까지를 통역 기술의 성장기로 규정하였는데, 통신과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1973년 호주에서 처음으로 이민자를 위한 전화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통역 전달 매체가 전화와 비디오 등으로 다양화되었을 뿐 아니라 1980년대부터 음성인식과 기계번역 기술의 발달로 기계통역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통역 기술의 폭발기는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인공지능, 무선 이동통신, 클라우드, 음성인식 등 기술의 발달이 원격통역과 인공지능, 기계통역 등 다양한 통역 관련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王華樹, 楊承淑 2019: 70-71). 다만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해보자면 국제회의의 순차통역의 서막을 연 1919년 (파리강화회의), 동시통역이 시작된 1945년(뉘른베르크 재판)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동시통역 전면적으로 촉발된 2020년은 통역의 발전사에 있어 가장 급진적으로 기술적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통역학계에서 통역과 기술을 주로 연구해왔던 학자들은 최근 통역 분야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전환은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Braun 2019: 271; Fantinuoli 2018: 170). 이는 과거의 경우 통역을 전달하는 매개 관련 기술의 발달이 통역의 전달 방식을 순차, 동시 그리고 원격으로 전환하는데 국한되었다면, 최근의 기술적 전환은 기존의 통역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매개

체와 관련된 기술 외에, 통역사의 업무를 보조하여 더 나은 통역 품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 더 나아가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기계통역 등 통역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의 관련 기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통역의 기술적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브라운(Braun 2019: 20)은 통역에 사용되는 기술의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통역 서비스의 전달 및 도달률 향상과 관련된 ‘통역 매개 기술(technology - mediated interpreting)’, 통역사의 사전 준비와 작업 과정에 도움을 주어 퍼포먼스 향상에 기여하는 ‘통역 지원 기술(technology - supported interpreting)’, 그리고 기계 스스로 통역 내용을 생성하여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 통역 관련 기술(technology - generated interpreting)’로 구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중 통역 기술 관련 연구 분석을 위해 앞서 왕화수와 양청수(2019)가 제안한 통역 기술에 대한 정의 및 브라운(2019)이 위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통역 기술에 대한 3개 범주를 참고하여 연구 분석을 위한 분류 체계의 틀을 수립하고자 한다.

## 2.2 통역 기술 관련 메타 연구

### 2.2.1 국내

통번역학 연구 관련하여 국내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번역 관련 연구 대비 통역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훨씬 적으며(한현희 2016: 253; 김혜림 2013: 111) 이에 따라 통역학 자체에 대한 양적 및 질적 분석을 수행한 메타연구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통역 관련 연구 성과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메타연구는 원종화(2015)와 한현희(2016) 단 2편이며, 최문선(2016)과 황지연(2020)이 코퍼스 기반 통역학에 대해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외에 통번역학 연구에 대한 메타연구를 수행하면서 통역학과 번역학에 대해 비교적 균형 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연구로는 김혜림(2013)의 연구가 있으며, 2010년대 이후의 통번역학 연구 동향을 양적으로 분석한 이창수(2019)의 연구에서 일부 통역학 관련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위에 열거된 통역학 메타연구 중 통역과 기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원종화(2015)의 경우 8개 패러다임으로 나누어 논문 분석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중 인지정보처리(CP)패러다임이 부분적으로 통역 및 기술과 연계성을 갖지만, 해당 패러다임에 속하는 논문들은 주로 통역사의 정보처리 기제를 드러내기 위해 음성인식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해 실험연구를 진행하는 논문들로 현재 통역 품질의 제고를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차원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그 외 국내외 통역학 연구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한 한현희(2016)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통역과 테크놀로지 관련 논문은 국내 총 296편 중 5편, 해외 총 247편 중 3편으로 총 572편의 논문 중 1.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외를 불문하고 양적으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현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통역과 ICT를 접목한 연구가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며 향후의 ICT가 통역의 발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컴퓨터 보조통역(CAI), 컴퓨터보조통역교육(CAIT), 음성인식 프로그램, 기계통역, 원격통역의 발전과 보급에 따른 연구 가능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혜림(2013)의 경우 당대 번역학 연구 동향을 분석하면서 별도로 통역의 분류 기준과 함께 통역과 테크놀로지라는 하위 분류 체계를 마련하였다. 다만 양적 분석 결과 통역과 테크놀로지 관련 연구는 통역과 번역을 합하여 전체 분석 대상의 2.59%로 주제 별 분류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여 의미 있게 언급되지 않고 있다.

위에 열거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2010년대 중반에 이르러 기까지 통역과 기술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매우 적으며 연구 주제로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2010년대 이후 국내 통번역학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이창수(2019: 119)의 연구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는 2016년부터 2019년에 해당하는 2010년대 후기부터 기계(machine), 기술(technology), 인간(human), 기계번역(MT) 등 관련 주제의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 시기에는 관련 어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통번역 연구의 ‘기술적 턴(technological turn)’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그는 2019년부터 기계번역 관련 연구가 줄어들어 ‘기술적 전환’이 일시적 현상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였으나 지금까지 통역과 기술 관련 주제로 국내에서 발표된 총 27편의 논문 중 9편이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인 것을 감안할 때 번역연구에서의 기술적 전환이 통역연구로 대체 및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1.2 중국

중국의 통역과 기술 관련 메타연구의 경우 왕화수와 리즈(王華樹,李智)가 2020년도에 발표한 ‘口譯技術研究現狀,問題與展望(1988-2019)一項基于相關文獻的計量分析(통역 기술에 대한 연구 현황, 문제와 전망(1988-2019)—관련 문헌 기반 양적 분석)’ 연구와 2021년도에 장웨이와 리우유보(張威, 劉宇波)가 발표한 ‘國內外口譯研究最新進展對比分析—基于CiteSpace的文獻計量學研(2015-2019)(국내외 통역연구 최신 동향 비교 분석 - CiteSpace를 활용한 양적 분석)’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왕화수와 리즈(2020)의 연구에서는 198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해외에서 발표된 통역 기술 관련 연구 문헌에 대한 양적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대상 문헌은 CNKI, Web of Science 등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와 출판물 및 중국번역협회, AIIC 등 통번역 관련 협회 등에서 발행된 문헌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중국 문헌 64편, 해외 문헌 159편을 수집하였으며 문헌의 종류는 학술논문이 8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 기술 관련 논문의 발표는 2010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에서는 1988년, 중국에서는 2001년에 첫 통역 기술 관련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주제는 통역과 기술에 대한 총론적 성격의 연구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CAIT, 통역코퍼스, 원격화상회의, 전화통역, 통역술어 관리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는 장웨이와 리우유보(2021)의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장웨이와 리우유보(2021)는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중국과 해외에서 발표된 통역 관련 학술 논문의 양적 분석을 통해 메타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 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 중국의 경우 통역교육(44%), 코퍼스(20%), 통역기술(10%), 통역사의 역할(9%), 통역전략(7%), 인공지능(5%), 기타(5%) 순으로 나타났는데, 직접적인 ‘통역 기술’ 외에 기술적 요인과 관련성이 높은 ‘코퍼스’, ‘인공지능’을 합할 경우, 전체 연구 주제 비중의 35%를 차지하며 통역과 기술 관련 주제가 두 번째로 많이 연구되는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중국의 통번역학계에서 통역 기술 관련 연구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연구 주제의 분류에 있어 ‘인공지능’이 단독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중이 5%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이라는 연구 주제는 동시에 양적 분석이 진행된 해외 논문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주제이며, 앞서 진행된 왕화수와 리즈(2020)의 분석에서도 해당 주제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통역 기술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분류할 만큼 연구 주제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장웨이와 리우유보(2021) 연구에서 문헌 분석 시기를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설정하였는데, 해당 시기는 중국의 통역 기술 관련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매우 분명하게 중국의 통역기술 관련 연구가 기존의 ‘기계통역’의 담론을 넘어 ‘인공지능통역’의 단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와 중국의 통역 및 통역 기술과 관련된 메타연구를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국내의 경우 통역 기술 관련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메타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국의 경우 1편 확인되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국내외 공히 통역과 관련된 연구의 총량<sup>3)</sup>이 번역 대비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중국의 경우 통역 기술 관련 연구가 2010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공지능, 코퍼스, 통역 기술 등 전반적으로 테크놀로지 관련 연구 주제가 전체 통역 연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통역 연구의 총량은 적으나 통역 기술 관련 연구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구 통역학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환티누올리(Fantinuoli 2018: 157)에 따르면 2010년 이전까지 미미한 수준에 그치던 통역과 ICT를 주제로 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신기술(New technology)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앞서 번역에 이어 통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기술적 전환의 흐름이 통역연구에 반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 2) 이는 왕화수와 리즈(2020)의 연구의 경우 연구 주제 분류를 국내의 통합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통역기술’ 주제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된다.  
3) 국내의 경우 김혜림(2013: 111)의 연구에서 번역 연구의 총량이 통역보다 4배 많다고 언급하였고, 중국과 서구지역의 경우 1988년~2019년까지 통역 기술 관련 문헌이 각각 64편과 159편(王華樹, 李智 2020: 51), 2015년~2019년까지 통역연구 관련 논문이 각각 145편과 250편(張威, 劉宇波 2021: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국내 통역학계에서 현재의 기술적 전환을 반영하는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동향을 분석하고, 현재 통역 실무뿐 아니라 통역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기술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통역 기술 관련 연구를 함께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왕화수와 리즈(2020)가 기존에 중국의 통역 기술 연구와 관련하여 메타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논문은 첫째, 코로나19 이후의 급변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연구 주제나 시기별 특징에 있어서 중국과 해외의 연구분석 결과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명확하게 중국의 메타연구 분석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왕화수와 리즈(2020)의 연구방법론과 연구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여 2021년도 기준 중국의 통역 기술 관련 연구 동향을 새롭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 3. 통역의 기술적 전환을 반영하는 한·중 연구 동향 분석

####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공신력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통역의 기술적 전환을 반영하는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의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등재지 기준, 중국의 경우 핵심학술지(核心期刊)와 중문사회과학인문색인(中文社會科學引文索引, Chinese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CSSCI)에 등재된 학술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각각 KCI<sup>4)</sup>와 CNKI<sup>5)</sup>를 논문 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삼았다. 논문 수집을 위한 검색어는 ‘통역+기술(technology)’, ‘통역+인공지능(AI)’, ‘통역+정보기술(ICT)’, ‘통역+플립러닝’, ‘통역+블렌디드러닝’, ‘통역+코퍼스’, ‘기계보조통역(CAI)’, ‘기계보조통역교육(CAIT)’, ‘기계통역’, ‘자동통역’, ‘원격통역’, ‘원격화상통역’을 입력하였으며, 수집 기간은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로 설정하였다. 논문 수집 기간을 2010년도부터로 설정한 것은 앞서 왕화수

4) KCI(Korea Citation Index) <https://www.kci.go.kr>

5) CNKI(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https://www.cnki.net>

와 리즈(2020)가 진행한 통역 기술 관련 메타연구에서 중국의 경우 2010년도부터 통역 기술 관련 논문의 게재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였고, 한국의 경우도 등재지 기준 통역 기술과 관련된 첫 논문이 2008년에 발표되었으나 2010년도 이후부터 매년 관련 논문이 꾸준히 게재된 것을 감안하여 데이터 수집 기간을 2010년도 이후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통역 기술 관련 혹은 통역학 관련 메타연구에서 한국과 중국 공히 가장 최근에 진행된 연구가 2019년도까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통역의 기술적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연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인 2021년도 7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수집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표 1〉 연구 방법

	한국	중국
데이터 출처	KCI (Korea Citation Index)	CNKI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데이터 수집 기간 설정	2010년 1월~2021년 7월	
검색어	‘통역+기술(technology)’, ‘통역+인공지능(AI)’, ‘통역+정보기술(ICT)’, ‘통역+플립러닝’, ‘통역+블렌디드러닝’, ‘통역+코퍼스’, ‘기계보조통역(CAI)’, ‘기계보조통역교육(CAIT)’, ‘기계통역’, ‘자동통역’, ‘원격통역’, ‘원격화상통역’	
분석 대상	KCI 등재지 기준	핵심학술지(核心期刊)와 CSSCI 등재지 기준
분석 방법	양적 및 질적 분석	

### 3.2 분류 체계

본 연구의 논문 데이터 분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기존에 통역 기술과 관련된 메타연구를 수행한 왕화수와 리즈(2020)의 연구 내용과 통역과 테크놀로지 관련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브라운(Braun 2019)의 통역 기술 분류를 참고하고자 한다. 우선 왕화수와 리즈는 중국과 해외의 통역 기술 관련 연구에 대한 메타연구를 수행하며 투어리(Toury 2012)와 먼디(Munday)의 응용번역학 연구 체계를 기본 틀로 하여 교과과정 설계 및 CAIT 관련 선행연구 내용 등을 반영

한 ‘통역기술 응용연구 체계(口譯技術應用研究体系)’를 아래 <표 2>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王華樹, 李智 2020: 54). 왕화수와 리즈는 통역 기술과 관련된 응용연구의 범주를 크게 교육연구, 수행연구, 비평연구로 나누고 각각의 범주에 대하여 다시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

〈표 2〉 왕화수와 리즈<sup>6)</sup>가 제안한 통역기술 응용연구 체계

통역기술 응용연구	통역기술 교육연구	교육 설계
		교육 개발
		교육 실시
		교육 평가
	통역기술 수행연구	통역 설비
		정보 검색
		용어 관리
		컴퓨터보조기술
		....
	통역기술 비평연구	통역 제품
		통역 기능
		통역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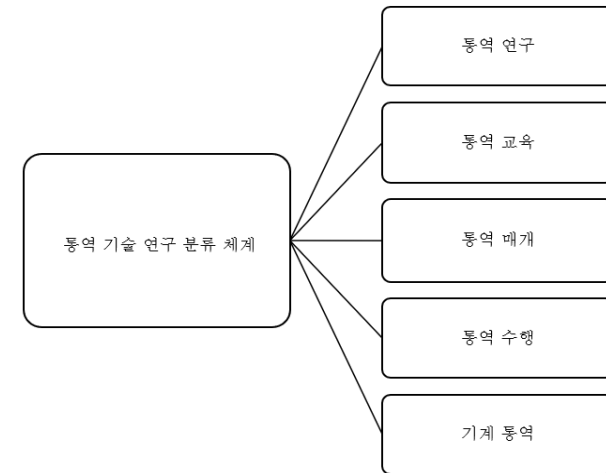
이와는 대조적으로 브라운(2019)의 경우 ‘Technology and interpreting’ 제하의 논문에서 통역에 사용되는 기술을 통역 서비스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 ‘Technology - mediated interpreting(통역매개기술)’과 통역 준비와 수행을 지원 하는 기술인 ‘Technology - supported interpreting(통역보조기술)’ 그리고 인간을 대체하여 통역 내용을 직접 생성하는 ‘Technology - generated interpreting(통역 생성기술)’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앞서 왕화수와 리즈의 통역기술 응용연구 체계의 경우 기본적으로 통역기술 ‘연구’에 중점을 두고 분류 체계를 미시적으로 세분화하였으나 인간통역 외에 현재 부상하고 있는 기계통역에 대한 범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범주의 포괄성 면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기존에 진행된 통역 기술 관련 연구 대비 과도하게 미시적으로 분류 체계가 수립되어 실제 분석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브라운(2019)이 제시하고 있는 통역 기술의 분류는 통역에 활용되는 ‘기술’ 자체에 중점을 두고 거시적으로 분

6) 그림 출처: 王華樹, 李智 (2020: 54)

류를 시도하였으나, 기존 통역 기술 관련 연구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통역 교육 관련 범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분석의 틀로서 활용하기에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 소개된 선행연구에서 수립된 통역 기술 관련 분류 체계를 참조하고, 더불어 본 연구에서 진행된 한국과 중국의 통역 기술 관련 연구의 양적 및 질적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류 체계를 아래와 같이 새롭게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 체계의 큰 범주를 ‘통역 연구’, ‘통역 교육’, ‘통역 매개’, ‘통역 수행’, ‘기계 통역’ 5가지로 나누고자 한다(그림 1 참조). ‘통역 연구’는 통역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연구, 통역 기술과 관련된 메타연구, 통역 관련 기술 자체에 천착한 이론 연구 등이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통역 교육’으로 CAIT, ICT, VR, AR, 원격기술, 플립러닝, 블렌디드러닝 등 정보통신 및 첨단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통역 교육에 적용한 연구가 해당 범주에 속하며, 세 번째는 ‘통역 매개’로 앞서 브라운(Braun 2019: 217)이 언급한 ‘Technology - mediated interpreting’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통역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로 ‘전화통역’, ‘동시통역 설비’, ‘원격통역 플랫폼’ 등 통역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에 대한 연구가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 네 번째는 ‘통역 수행’으로 통역사의 통역 퍼포먼스에 도움을 주는 기계 보조적 시스템 혹은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로 통역 수행을 위한 준비과정과 실제 통역 수행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술 관련 연구가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 마지막은 ‘기계 통역’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자동통역에 대한 연구가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

그림 1 본 연구의 통역 기술 연구 분류 체계



### 3.3 한·중 연구 동향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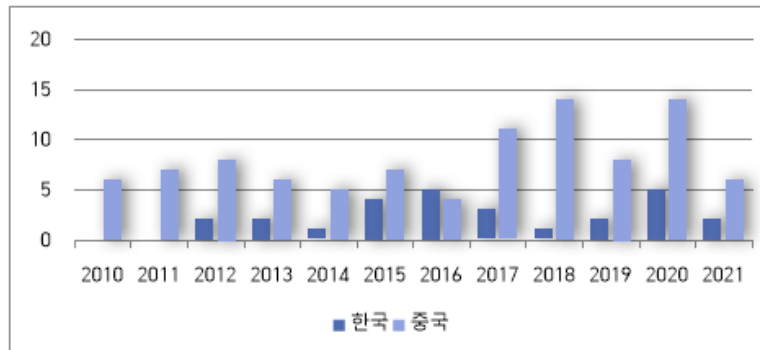
#### 3.3.1 논문 발표 총량

2010년도부터 2021년 7월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발표된 통역 기술 관련 논문의 총량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총 27편, 중국은 총 96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발표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2010년과 2011년에는 발표된 논문이 없으며 2012년도부터 통역 기술 관련 논문이 꾸준히 발표되면서 2016년도와 2020년도에 각각 5편씩 발표되어 정점에 달하였다. 2016년과 2020년은 각각 인공지능경망의 도입으로 기계번역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원격통역이 시작된 원년으로 이러한 시대 및 사회적 배경이 국내 통역 기술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2015년부터 통역교육에 블렌디드러닝을 적용하고, ICT를 통역 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연구들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6년의 경우 이러한 연구 흐름에 통역코퍼스에 대한 연구 및 기계통역에 대한 연구가 더해지며 논문 총량이 증가하였다.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시대적 배경이 연구 동향에 드러나는데, 원격통역을 주제로 한 총 6편의 논문 중 4편이 두 해에

집중되어 있어 새롭게 부상한 원격통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 2010년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표된 통역 기술 관련 논문이 총 97편으로 총량 면에서 한국과 현격한 격차를 보인다. 중국은 2010년도 이후로 통역 기술 관련 연구가 매년 평균 6~7편 이상 발표되었으며, 특히 2017년과 2018년 각각 11편과 14편, 그리고 2020년도에 14편, 2021년도 7월 기준 6편이 발표되어 한국과 마찬가지로 2차례 정도 정점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1차 정점의 시기가 한국은 2015~2016년, 중국은 2017~2018년으로 가깝지만 차이를 보이며, 2차 정점은 한·중 모두 202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그림 2 한·중 통역 기술 관련 논문 발표 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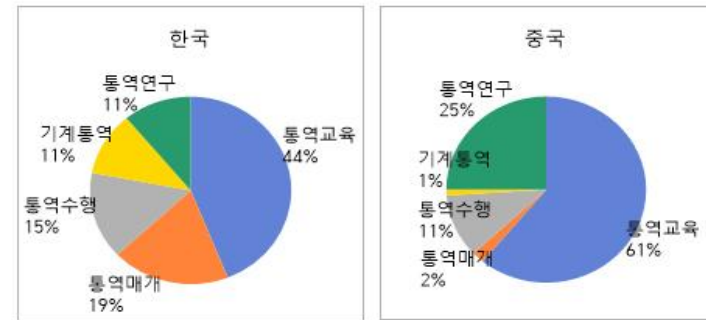
중국의 1차 정점인 2017년도와 2018년도의 경우 가장 많이 발표된 논문은 통역 교육에 ICT, AI, VR 등 신기술을 적용하고 플립러닝 등 새로운 교육방법론을 도입한 통역 교육 관련 논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7년도에는 통역 교육 관련 논문이 총 11편 중 6편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2018년도의 경우 여전히 통역 교육 관련 연구가 14편 중 7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그 외에 음성인식 기술을 통역 수행에 활용하고, 코퍼스를 통역 준비에 적용하는 통역 수행 관련 연구가 총 4편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특징을 갖는다. 2020년도의 경우 총 14편이 발표되었는데 그

중 통역 교육 관련 논문이 6편, 코퍼스 기반 통역학 등 통역 연구 관련 논문이 5편, CAI 활용 등 통역 수행 관련 논문이 3편으로 특정한 분야에 치중되기보다는 통역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고르게 발표되는 특징을 보였다.

### 3.3.2. 연구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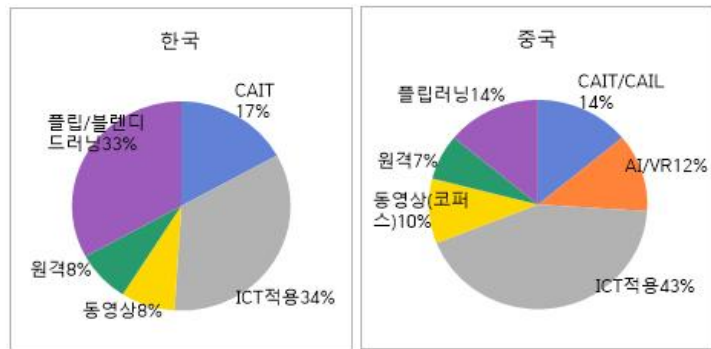
다음으로 앞서 3.2에서 수립한 5개 범주의 분류 체계에 따라 한·중 양국의 통역 기술 관련 연구에서 어떤 주제들이 많이 연구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에서 공히 통역 교육 관련 연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그림 3 한국과 중국의 통역 기술 관련 연구 주제 비중



연구 주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통역 교육의 연구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총 12편으로 전체 연구 주제 중 44%를 차지하였다. 연구 내용은 주로 통역 교육 혹은 훈련 과정에 ICT를 적용한 훈련 시스템 개발, CAIT를 도입한 수업 설계, 동영상 촬영의 교육적 활용, 플립러닝과 블렌디드 러닝 등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수 모형 설계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통역 교육에 대한 연구의 경우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에 적용 및 응용되어야 하는 연구인만큼 문헌연구보다 설문조사, 인터뷰, 사례분석 등 실증연구의 비중이 전체 12편 중 10편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중국의 경우 통역 교육 관련 연구가 총 56편으로 전체 연구의 66%를 차지해 연구 주제가 교육 분야로 편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림 4 통역 교육 관련 연구 중 세부 주제 비중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세부 연구 주제와 분포에 있어 한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 중국의 경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통역 교육과 관련된 연구 안에서도 시기별 세부 주제의 흐름 변화가 관찰되는데, 예를 들면 2010년에서 2017년까지 ICT를 교과과정 설계, 교수방식, 학습자원, 교육모델 개발 등 통역 교육의 다양한 측면에 활용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면, 2017년에 처음 인공지능(AI)이라는 단어가 논문 제목에 전면으로 등장하는 통역 교육 연구가 발표되면서 2018년 이후로 현재까지 VR, AI를 키워드로 하는 관련 논문의 발표량은 총 7편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역 교육 관련 VR과 AI를 주제로 한 연구는 주로 VR기술을 활용해 통역 실무 현장과 유사한 현장감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학습 효율을 높이는 연구, VR과 AI 기술을 이용해 현실과 가상 및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교육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국내의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통역 교육에 가상현실(VR)에 기반한 학습환경 설계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통역 교육과 관련된 논문이 발표된 사례가 없어 AI, VR 관련 연구의 유무가 양국의 통역 교육 관련 연구의 세부 주제와 관련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라 하겠다.

또 한가지는 중국의 경우 동영상 코퍼스를 포함한 통역 및 번역 코퍼스를 통역 교육의 콘텐츠로 활용하는 연구가 전체 연구의 10%를 차지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동영상을 활용하는 연구가 1편 있으나 이는 교육 방법론적인 차원에

서 동영상 촬영을 통해 학생의 성찰적 학습을 돕는 연구로 중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코퍼스와 관련해서는 통번역 학습자를 위해 코퍼스를 활용한 연어사전을 구축하는 연구가 1편 확인되어 향후 국내에서 동영상과 통역 및 번역 등 다양한 유형의 코퍼스와 디지털 자원을 통역 교육의 콘텐츠로 활용하는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통역 매개와 관련된 연구는 국내의 경우 총 5편이 발표되었는데 모두 '원격통역'에 대한 연구로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1편, 팬더믹이 시작된 2020년에 이어 최근 2021년까지 총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연구 내용은 주로 통역사들의 실제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혹은 인터뷰를 바탕으로 원격통역의 특징과 현황을 소개하고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는 연구, 원격통역의 규범과 실제 관련 이론을 소개하는 문헌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중국의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전달하는 매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원격회의통역에 대한 메타연구와 생방송 통역에 대한 연구 총 2편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그 외 통역 수행을 주제로 한 연구는 한국의 경우, 원격통역의 실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통역능력에 대한 연구와 통역 수행을 위한 전문용어 준비과정에서 C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총 2편이 확인되었고, 중국의 경우 음성인식을 통역 수행 시 활용하는 연구, 원격의료통역 수행에 대한 사례분석, 통역 수행에 필요한 통역사의 기술활용 능력, 스마트펜을 활용한 순차통역 노트태깅, CAI 활용시 실제 통역 퍼포먼스에 미치는 간섭 효과, 코퍼스를 활용한 용어 추출 등 통역 수행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적 요소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나 연구방법에 있어서 총 10편의 통역 수행 관련 연구 중 1편을 제외한 모든 연구가 실험연구와 설문조사, 사례분석 등의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 결과의 활용도와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기계통역과 관련된 연구는 국내의 경우 한영 자동통역 시연, 중국의 인공지능 기반 통역 현황, 다국어 자동 통번역을 위한 기술적 방법론을 다룬 연구 총 3편이 확인되었고, 중국의 경우 대화의 함의를 형식적으로 처리하여 기계통역에 적용하는 연구 총 1편으로 인간이 배제된 기계통역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역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의 경우 주로 코퍼스 기반 통역학에

대한 연구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경우도 전체 24편의 통역 연구 관련 내용 중 코퍼스 기반 통역학 및 코퍼스 구축과 개발에 대한 연구가 15편으로 62.5%를 차지해 통역 기술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코퍼스 외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아이트래킹(eye tracking)을 통한 통역의 인지 부하에 대한 연구, 생물언어학을 적용한 통역 연구 방법론 제안, 인간과 기계 통역에 대한 기술철학적 관점의 연구 등으로 연구 주제뿐 아니라 방법론 측면에서 학제를 초월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3.3 키워드 분석

통역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외 중국에서 발표된 27편과 96편의 논문의 키워드에 대해 빈도 분석(7)을 진행한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키워드 양적 분석 결과

한국			중국		
키워드	빈도	가중치	키워드	빈도	가중치
통역	52	1	통역(口譯)	98	1
교육	11	0.8021	교육(教學)	44	0.84
학습	10	0.7905	코퍼스(語料庫)	28	0.8033
코퍼스	8	0.7638	기술(技術)	21	0.745
번역	6	0.7303	학습(學習)	13	0.7025
			모델(模式)	11	0.6854
			다중 모드 (多模態)	7	0.683
			정보기술(信息技術)	9	0.6828
			플립러닝(翻轉課堂)	8	0.6824
			AI(人工智能)	6	0.6629
			교육모델(教學模式)	7	0.6571
			원격(遠程)	7	0.6565
			통역사(譯員)	5	0.656
			컴퓨터보조(計算機輔助)	6	0.6418

7) 키워드 빈도분석은 어휘분석도구 picdata를 활용하였으며 빈도수 5회 이상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심도, 깊이(深度)	6	0.6407
인지(認知)	5	0.628
VR(虛擬現實)	5	0.624
동시통역(同聲傳譯)	5	0.624
훈련(訓練)	5	0.6093

양국 모두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통역’ 외에 ‘교육’이 다음으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 교육적 관점의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외에 양국 공히 ‘코퍼스’에 대한 빈도수가 높는데, 이는 코퍼스를 기반으로 하는 통역학 연구 외에 실제 통역 수행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코퍼스가 다양하게 활용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에 중국 연구에서 보이는 ‘다중 모드’(多模態, Multi Modality)라는 키워드의 경우 주로 코퍼스 구축과 교육 관련 연구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과거와 달리 텍스트 중심이 아닌 시청각 등 다중 모드가 지닌 통역 코퍼스의 구축과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더욱 현장감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관련 연구에서 ‘다중 모드’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그 외에 정보기술, 플립러닝, AI, 원격, 컴퓨터보조, VR 등의 키워드가 높은 빈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최신의 발전된 기술을 통역 교육과 수행에 적용하려는 연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 3.3.4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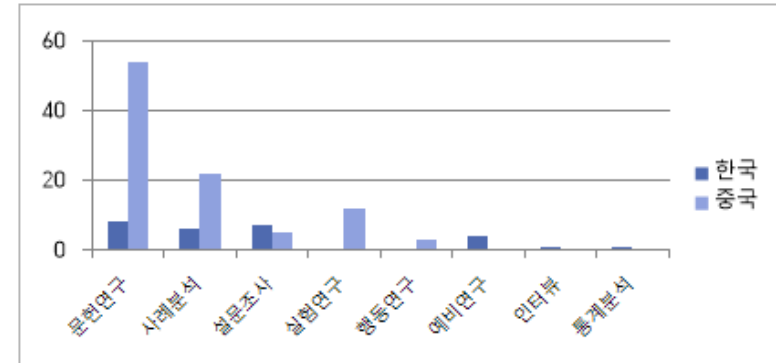
한·중 양국의 통역 기술 관련 연구에 대한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양국 공히 문헌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국내의 경우 문헌연구 외에 설문조사, 사례분석, 예비연구<sup>8)</sup>, 인터뷰, 통계분석 순으로 연구방법이 활용되었으며, 중국의 경우 문헌연구가 전체 96편 중 54편을 차지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 사례분석, 실험연구<sup>9)</sup>, 설문조사, 행동연구<sup>10)</sup>의 순

- 8)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기 전에 제안된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준비개념으로 실행하는 작은 규모의 실험연구.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상답학 사전>.
- 9) 실험 연구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연구방법으로 여겨진다. 실험 연구에서 집단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뉜다. 실험집단은 처치를 가한 집단을 말하고 통제집단은 처치를 가하지 않은 집단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 10) 액션리서치(action research)는 집단에 실제로 작용해서 현장의 관계자와 전문가가

으로 비교적 다양한 실증적 연구방법<sup>11)</sup>이 적용되었다(그림 5 참조). 연구방법에 있어서 양국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실험연구를 수행한 논문이 1편도 없는 반면, 중국의 경우 실험연구를 수행한 연구가 총 13편으로 실증적 연구방법 중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험연구를 수행한 논문은 컴퓨터보조통역교육(CAIT)과 VR 혹은 플립러닝을 적용한 교수 모델 등 통역 교육과 훈련 관련 연구가 6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CAI와 음성인식 기술 등의 적용이 통역 퍼포먼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역 수행 관련 연구가 5편 등으로 주로 통역 교육과 수행 과정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효과를 검증하고 집단 간 변인을 밝히기 위해 실험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시 중국에서만 진행된 행동연구 역시 모두 플립러닝 등의 교육방식을 실제로 통역 교육 현장에서 구현한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통역 교육 및 수행과 관련된 다수의 문헌연구 외에 다양한 차원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제 교육 및 통역 현장에서의 적용과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력해 현실의 사회장면의 전개과정을 관찰, 기록, 분석을 하는 등의 연구를 하고 그 성과를 집단에 피드백함으로써 집단내 문제의 개선이나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이고, 집단역학 연구법의 하나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11) 실증적 연구 방법은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학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경험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문화 현상에 관한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하려는 연구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사회조사나 실험 등에 의해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치로 계량화(計量化)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그림 5 연구방법 양적 분석 결과



### 3.3.5 학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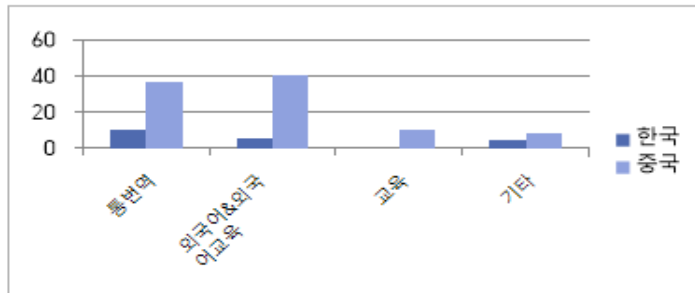
다음으로 양국의 통역 기술 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에 대해 양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의 경우 통번역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전체 27편 중 10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국어 관련 학술지에 6편, 기타(학제연구) 학술지에 1편이 게재되었다. 구체적으로 통역 기술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는 『통번역학연구』로 총 7편이 게재되었으며, 뒤를 이어 『번역학연구』(6편), 『통역과 번역』(5편), 『통번역교육연구』(2편), 『스페인어문학』(2편) 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는 한국과 다르게 ‘통번역’ 전문 학술지보다 ‘외국어/외국어 교육’ 관련 학술지에 통역 기술 관련 논문이 많이 게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96편의 연구 중 외국어/외국어교육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41편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통번역 학술지에 37편, 교육 관련 학술지에 10편, 기타(과학기술, 사회과학 등)학술지에 8편이 게재되었다. 그러나 개별 학술지를 기준으로 게재량을 살펴보면 통번역 전문 학술지인 『中國翻譯(Chinese Translators Journal)』이 23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으며, 뒤를 이어 『外語電化教學(Technology Enhanced Foreign Languages)』(20편), 『上海翻譯(Shanghai Journal of Translators)』(10편), 『現代教育技術(Modern Educational Technology)』(5편), 『中國外語(Foreign Languages in China)』(4편) 순으로 많이 게재되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경우 통번역 전문

학술지에 통역 기술 관련 논문 게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중국의 경우 통번역 전문 학술지 외에 외국어와 외국어 교육 그리고 일반 교육 관련 학술지에도 통역 기술 관련 논문의 게재 비중이 높으며, 더불어 ‘기타’에 속하는 학술지 중에는 의학 계열<sup>12)</sup>에서 사회과학 계열<sup>13)</sup>의 학술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통역 기술과 관련된 융합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한·중 통역 기술 관련 논문 게재량 Top5 학술지

학술지명	게재량	비중	학술지명	게재량	비중
통번역학연구	7	26%	中國翻譯	23	24%
번역학연구	6	22%	外語電化教學	20	21%
통역과 번역	5	16%	上海翻譯	10	10.4%
통번역교육연구	2	7.4%	現代教育技術	5	5.2%
스페인어문학	2	7.4%	中國外語	4	4.2%

그림 6 학술지 종류별 게재 비중



## 4. 논의 및 결론

### 4.1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앞서 살펴본 한·중 통역 기술 관련 연구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향후 국내 통역의 ‘기술적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통역 기술 관련 연구의 양적 증가가 시급하다. 금번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의 경우 통역 기술 관련 연구가 총 27편, 중국은 96편으로 확인되었다. 통역과 기술이 결합되는 주제의 특성상 양국 모두 통번역 전문 학술지만을 데이터 수집 대상으로 삼지 않고 모든 분야의 학술지를 수집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검색어도 통역 기술과 밀접한 검색어는 총망라하여 ‘통역+인공지능’, 통역+AI’과 같이 결합어의 형식과 ‘기계통역’ 등 단일어의 형식으로 총 12개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논문이 총 27편으로 양적으로 매우 적었다. 중국의 경우 동일 시기 96편이 확인되는데, 한국과 비교하여 통번역 실무 훈련중심의 석사과정 및 연구중심의 박사과정 개설이 모두 뒤늦음<sup>14)</sup>에도 불구하고, 통역 기술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3.6 배나 많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물론 중국의 경우 2007년 국가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번역 석사과정(MTI)을 도입하면서 관련 학과의 증가로 연구량이 많아지는 배경이 존재하나, 단순한 양적 증가 외에 통역 교육과 수행 차원에서 다양한 실험과 새로운 연구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연구 논문의 양적 증가는 단순히 수치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 대한 이론적 축적과 함께 다양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물로 이어져 현장에 적용되고 활용되면서 다시 새로운 연구를 촉발하는 이론과 실무의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 또한 연구의 양적 증가는 연구 결과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밑바탕이 된다. 기계통역의 밀거름이 되는 기계번역과 음성인식 기술의 비약적 발전, 팬더믹이 촉발한 원격통역의 보편화, 빅데이터, 딥러닝, VR, AI를 통한 기계보조통역(CAI)과 기계보조통역교육(CATI)의 발달은 향후 통역의 ‘기술적 전환’을 가속화 하는 촉매가 될 것이고, 이러한 미래의 통역 발전 방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과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통역 기술 관련 연구의 양적 증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향후 통역의 ‘기술적 전환’을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 하겠다.

12) 학술지명 『Translational Vision Science & Technology』

13) 학술지명 『Crossroads:Southeast Asian Studies』

14) 한국은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각각 1979년과 1999년에 한국외대에 처음 개설되었으며, 중국은 1994년(北京外大高翻學院)과 2004년(上海外大高翻學院)에 처음 통번역 석사 및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둘째, 통역 교육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교육 내용 및 방법의 기술적 혁신이 필요하다. 한·중 통역 기술 관련 연구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양국 공히 연구 주제에 있어 통역 교육 관련 연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는 기존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통역사보다 앞으로 활동하게 될 미래 통역사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이들을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론에 있어 새롭게 발전하는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성을 제고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따라서 통역 교육 관련 연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고무적인 결과라 하겠다. 다만 국내의 경우 통역 교육 관련하여 블렌디드와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 설계(4편), 통역 학습자의 자가 학습 및 훈련을 위한 도구 개발(4편), 원격 교육(1편)과 원격통역을 위한 교육적 제언(2편), CAIT에 기반한 수업 설계(1편), 순차 수업에서의 동영상 활용(1편), 위키에 기반한 학습모델 개발(1편)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연구 내용에서 알 수 있듯 교육 ‘내용’보다는 ‘방법론’ 차원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역의 ‘기술적 전환’ 그리고 향후 당분간은 지속될 팬데믹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통역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성’ 제고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방향성은 이미 앞서 소개한 중국의 통역 교육 관련 연구에서 VR과 AI 기술을 통역 수업에 적용한 연구, 동영상 코퍼스 구축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등이 최근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혼합한 형식 혹은 비대면 원격수업이 주요 수업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간적 제약이 있는 원격 상황에서도 학습자들이 최대한 현장감을 느끼며 통역을 실습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식 면에서 혁신적인 시도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교육 방법론 측면에서는 블렌디드와 플립러닝의 적용을 통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혼합 적용한 최적의 수업 설계, 혹은 원격수업 방식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컴퓨터보조통역교육(CAIT)의 활용 사례, VR 기술을 활용한 교수 환경의 현장성 제고 등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역 교육의 콘텐츠에 있어서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연설문이나 수업 자료 외에 연사의 음성, 발화속도, 신체언어, 주변환경, 들발변수 등을 학습자들이 시각 및 청각적으로 현장감 있게 경험할 수

있는 동영상 연설자료나 강의자료를 활용하는 수업 설계, 동영상 코퍼스의 구축과 교육적 활용, 기존 CAIT 툴의 활용과 사례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단순히 회의 현장에서 사용된 연설문을 교실에서 활용하는 수준의 현장성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시청각을 포함한 다양한 감각으로 직접 통역 현장을 느끼고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통역 학습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짧은 교육 기간 내에 최대의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재 컴퓨터보조통역(CAI)으로 활용되고 있는 음성인식을 통한 원어 자막과 전문용어 추출, 스마트펜을 이용한 노트테이킹 등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가능한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물론 아직 이와 같은 CAI 툴이 현재 모든 통역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언어권에 따라 정확도와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CAI에 대해 선제적으로 알고 있거나 사용 경험이 있다면 추후 통역 현장에서 적용하고 활용하는 데에 훨씬 유리할 것이다. 또한 통역 수행뿐 아니라 자가학습과 훈련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보조통역학습(CAIL) 툴을 적극 안내하고 활용을 장려하여 수업시간 뿐 아니라 스터디 및 자가 학습이 중요한 통역 학습자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통역 교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역 코퍼스와 컴퓨터보조통역(CAI)에 대한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중 양국의 통역 기술 연구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전체 연구에서 코퍼스와 관련된 연구 비중이 국내 22%, 중국 20%로 1/5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키워드 분석에서도 ‘코퍼스’가 국내에선 4번째, 중국에선 3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표 3 참조). 이와 같이 ‘코퍼스’가 단일 연구 주제로서 존재감을 갖는 것은 코퍼스 자체에 대한 통역학 관점의 연구뿐 아니라, 코퍼스가 통역 준비를 포함한 통역 수행과 교육 그리고 CAI 활용에 필요한 기본 재료로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국내와 중국의 코퍼스 관련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통역 준비를 위한 전문분야 용어집 구축 및 용어 추출을 위한 연구, 학습자용 연어사전 구축을 위한 연구, 통역 교육 및 학습자를 위한 코퍼스 구축에 관한 연구, 코퍼스를 활용한 통역 교재 개발 연구, 동시통역 및 병렬 코퍼스에 대한 연구, 코퍼스 기반 통역학 연구 등 통역 교육과 수행

및 연구에 있어 코퍼스가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번역과 달리 통역의 경우 기존에는 코퍼스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팬데믹 상황으로 통역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고 동영상 등으로 송출되면서 과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통역 코퍼스를 구축하기 용이한 환경이 구축되었다. 코퍼스는 결국 언어 데이터이고, 지금과 같이 딥러닝 기반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데이터는 황금보다 더 소중한 자원이기에 코퍼스의 가공과 처리를 포함한 구축과 개발에 대한 연구 및 코퍼스를 통역 교육 및 수행 관점에서 활용하는 연구는 통역의 실제적인 ‘기술적 전환’을 가속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연구는 컴퓨터보조통역(CAI)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연구 데이터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인간을 배제한 ‘기계통역’에 대한 연구는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통역의 ‘기술적 전환’이 향하는 방향성은 인간이 배제된 ‘기계통역’이 아닌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여 통역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통역 매개와 관련된 기술의 발달로 순차통역에서 동시통역으로 그리고 지금의 원격통역에 이르기까지 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통역 준비를 위해 과거처럼 도서관에서 용어사전을 뒤적이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배경지식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통역 내용의 생성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인간 고유의 인지적 프로세스를 통해 결과물이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CAI 관련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면서 동시통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자동으로 연설문에 등장하는 전문용어를 목표언어로 전환해 주거나, 혹은 년도, 장소, 일시, 계량 단위 등 통역 사들이 한번 듣고 놓치기 쉬운 수치 및 고유명사 관련 정보를 화면에 노출시켜 기억의 환기를 돕고, 음성인식을 통해 연사의 원어 자막을 생성하여 통역사의 인지적 부담을 덜어주거나, 순차통역의 경우 스마트펜을 이용해 노트태깅을 할 경우 연사의 음성이 녹음되어 통역사가 귀로는 음성을 듣고 눈으로는 자신이 노트한 내용을 보며 통역하여 통역 내용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역사의 인지적 부담을 덜어주는 툴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통역 매개와 통역 준비 과정의 기술적 전환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면, 이제는 통역 수행 과정으로 기술적 전환이 확대되면서 통

역사의 작업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CAI 도입 초기 단계로 CAI의 보편적 활용도를 높이고 통역 품질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CAI에 대한 다양한 문헌연구와 사례분석, 실제 통역사 및 통역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와 설문조사 등의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CAI의 인터페이스나 주요 기능에 반영될 때 통역사의 실제 필요와 현장의 작업 환경에 부합하는 CAI툴이 개발될 수 있고, 통역사의 인지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보조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인간과 기계의 효과적인 통역 공조를 위해 CAI와 관련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4.2 연구의 한계와 의의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된 통역 기술 관련 연구에 대한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통역의 기술적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통찰을 얻고자 하였다. 다만 연구 과정에서 몇 가지 연구의 한계에 직면하였는데, 첫째, 국내의 관련 연구는 총 27편으로 확인되어 양적 분석을 통해 거시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둘째, 분류 체계에 따라 연구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 일부 논문은 통역 매개와 통역 교육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등 범주가 중첩되어 연구자의 주관적인 질적 분석을 통해 내용 비중 등에 따라 범주화하고 분석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셋째, 통역 기술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연구가 시작되었고 선도하고 있는 서구의 통역 기술 관련 연구 동향을 함께 분석했다면 훨씬 더 거시적인 차원의 흐름 파악이 가능하고 연구 내용이 풍성해졌을거란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본 연구의 의의를 찾는다면, 첫째, 처음으로 국내의 통역 기술 관련 연구에 대한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통역 기술 연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 둘째, 통역 실무와 연구에서 최근 빠르게 기술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통역의 기술적 전환과 관련하여 실무 및 연구 차원에서 더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시사점과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바라기는 본 연구가 국내 통역 기술 연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희망한다.

### 참고문헌

김상원 외 (2017) 「순차통역용 단기 기억력 향상을 위한 훈련 시스템 개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12): 195-204.

김순미 (2020) 「언택트 시대, 원격통역이 주는 도전과 기회 - 한국통번역사협회(KATI)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4(4): 1-33.

김혜림 (2013) 「한국의 당대(1999-2013) 번역학 연구동향」, 『번역학연구』 14(5): 95-115.

상우연 (2020) 「한일 원격통역 현황과 통역사 수요에 기반한 교육적 제언」, 『번역학연구』 21(5): 129-159.

양성혜 (2012) 「MOODLE을 이용한 한서통번역 수업의 블렌디드 러닝 설계」, 『스페인어문학』 0(62): 9-36.

양성혜, 송상기 (2012) 「통역수업을 위한 위키학습모델 개발」,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23(3): 191-220.

원종화 (2015) 「국내 통역 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연구 패러다임 변화 중심으로 -」, 『번역학연구』 16(1): 35-64.

이나현 (2017) 학부 순차통역 수업 모형 제안—플립러닝과 협력학습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103(0): 219-235.

이미경 (2019) 「원격통역 활성화 요건 및 통역 교육의 함의」, 『통번역교육연구』 17(2): 63-84.

이민 (2016) 「中韓、韓中口譯平行語料庫의創建及應用」, 『중국어연구』 0(77): 117-136.

이지민 (2015) 「통역능력 향상을 위한 연습용 틀 개발 제안」, 『번역학연구』 16(5): 113-134.

이지은 외 (2014)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통역교수법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16(1): 117-144.

이지은, 최효은 (2014) 코스기반 통번역 학습자용 연어사전 구축 방안: 주석

용어를 중심으로 한 한국어 및 한국어-영어 연어사전 구축에 관한 예비 조사」, 『통번역학연구』 17(2): 117-147.

이지혜, 이용훈 (2020) 「중한 전문분야 통역 준비를 위한 코스기반 용어집 구축에 관한 예비 연구: 연설문에 등장한 경제 및 금융 용어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5): 269-297.

이창수 (2019) 「2010년대 국내 통번역학 연구 동향에 대한 키워드분석」, 『번역학연구』 20(5): 107-129.

임세인 (2016) 「순차통역 수업에서의 동영상 활용에 관한 예비연구: 학습자의 관점에서」, 『통번역학연구』 20(1): 147-176.

임세인 (2016) 「원격통역의 개념과 연구 동향 고찰」, 『통역과 번역』 17(3): 163-189.

장애리 (2019) 「중국의 인공지능(AI) 통역 발전 현황 분석」, 『번역학연구』 20(5): 163-195.

장애리 (2020) 「중국 번역학계 ‘기계 번역’ 연구 동향 분석」, 『T&I Review』 10(2): 111-133.

장애리 (2021) 「원격통역 시대에 필요한 통역능력에 대한 소고」, 『통역과 번역』 23(1): 213-236.

진실희 (2013) 「Constraints and the Applicability of ICT in the Self-Training of Conference Interpreting Students: Focused on Constraints related to the Spatial, Temporal, Authentic and Reflective Aspects of Learning」, 『통번역학연구』 17(2): 195-222.

진실희 (2017) 「통역교육의 교육 공학적 접근: CAIT 수업 설계를 위한 일 고찰」, 『통번역학연구』 21(2): 133-162.

진현 (2015) 「중→한 순차통역 교수 모형 설계—블렌디드 러닝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0(73): 407-429.

최문선 (2016) 「코스기반 통역학 연구 동향과 시사점」, 『통역과 번역』 18(3): 121-159.

최문선 (2018) 「전문분야 통역을 위한 용어집 구축 - 기술 도구의 적용가능성 고찰」, 『통역과 번역』 20(2): 163-191.

최문선 (2021) 「통역 4.0: 원격통역의 규범과 실제」, 『번역학연구』 22(1):

279-312.

최승권, 김영길 (2016) 「다국어 자동 통번역을 위한 공통 변환 기반 하이브리드 자동 번역 방법」, 『통번역학연구』 20(3): 121-136.

최은실, 김아영 (2020) 「한-영 실시간 자동통역 시연 사례」, 『통번역학연구』 18(2): 125-147.

한원덕 (2015) 「원격 스페인어 통역교육 연구」, 『스페인어문학』 0(71): 161-183.

한현희 (2016) 「한국 통역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해외 연구 동향과의 비교를 기반으로」, 『번역학연구』 17(2): 251-286.

홍설영 (2015) 「온라인 통역 자습 시스템의 구성요소 탐색 - 학습자 요구분석 중심의 한 예비조사」, 『통역과 번역』 17(2): 303-338.

황지연 (2020) 「코퍼스 기반 통역 연구에서의 보편소 현상」, 『통번역학연구』 24(1): 221-242.

陳圣白 (2015) 「基于語料庫的口譯翻轉課堂教學模式創新研究」, 『外語電化教學』 2015(6): 31-36.

鄧軍濤, 劉夢蓮 (2020) 「面向口譯教學的視頻語料資源庫深度開發機制研究」, 『外語教育研究前沿』 3(1): 37-43+88.

蔣莉, 華李穎 (2020) 「多模態視角下的遠程視頻會議口譯——基于醫療平台視頻線上會議的案例研究」, 『中國翻譯』 2020(5): 163-170.

孔莹 (2020) 「語音識別技術在口譯實戰中的應用」, 『科技視界』 2020(33): 51-52.

李智, 李德鳳 (2019) 「人工智能時代口譯員信息技術素養研究」, 『中國翻譯』 2019(6): 80-87.

劉夢蓮 (2018) 「IVY 虛擬現實口譯訓練模式研究」, 『上海翻譯』 2018(5): 78-83.

盧信朝 (2020) 「基于視頻會議平台的遠程同步口譯教學——以北美外高翻同聲傳譯課程為例」, 『中國翻譯』 2020(4): 76-84+191.

齊濤云, 楊承淑 (2020) 「多模態同傳語料庫的開發與建置——以職業譯員英漢双向同傳語料庫為例」, 『中國翻譯』 2020(3): 126-135.

蘇雯超, 李德鳳, 曹洪文 (2021) 「論口譯認知負荷的眼動研究」, 『外語學刊』

2021(3): 109-114.

王非, 梅德明 (2013) 「口譯過程中會話含義的形式化處理:原理與應用」, 『上海翻譯』 2013(4): 17-21.

王華樹, 楊承淑 (2019) 「人工智能時代的口譯技術發展:概念、影響與趨勢」, 『中國翻譯』 2019(6): 69-79.

王華樹, 李智 (2020) 「口譯技術研究現狀,問題與展望(1988-2019)——一項基于相關文獻的計量分析」, 『上海翻譯』 2020(3): 50-55.

王炎強 (2018) 「媒体直播同傳譯員“面子”保全策略研究」, 『上海翻譯』 2018(6): 44-49+94.

肖鸞儀, 王艷艷 (2020) 「模擬機器輔助功能對英漢同聲傳譯表現的干預研究」, 『廣東第二師範學院學報』 40(6): 52-57.

徐然 (2018) 「基于語料庫技術的口譯譯前準備模式建構」, 『中國翻譯』 2018(3): 53-59.

楊柳燕 (2017) 「數字技術輔助下的交傳筆記研究」, 『外語教學理論與實踐』 2017(3): 91-97.

姚斌 (2011) 「遠程會議口譯——回顧與前瞻」, 『上海翻譯』 2011(1): 32-37.

翟佳羽 (2019) 「虛擬現實技術輔助下情境化交傳與演講一體化教學研究與實踐」, 『外國語文』 35(6): 150-157.

張愛玲, 丁寧 (2021) 「抗疫背景下的遠程專業口譯教學」, 『中國翻譯』 2021(1): 81-88.

張吉良, 高彬 (2014) 「翻譯專業交傳、同傳訓練的視頻語料庫建設」, 『上海翻譯』 2014(5): 49-53.

張軼駿, 周晶 (2021) 「VR 與 AI 賦能的沉浸式情境口譯教學模式研究」, 『外語教育技術研究』 2021(1): 78-84+13.

張威, 劉宇波 (2021) 「國內外口譯研究最新進展對比分析——基于Cite Space的文獻計量學研究(2015-2019)」, 『上海翻譯』 44(2): 86-98.

趙毅慧 (2017) 「技術哲學視域下口譯技術的“名”與“實”探析」, 『外語教學』 38(6): 89-94.

鐘守滿, 王洪林 (2020) 「生物語言學視角下的口譯研究方法路徑創新」, 『西安外國語大學學報』 28(3): 93-96.

- Braun, Sabine. (2019) ‘Technology and interpreting’, in M. O’Hagan (eds.)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and Technology*, London: Routledge, 271-288.
- Fantinuoli, Claudio. (2018) ‘Computer-assisted Interpreting: Challenges and Future Perspectives’, in Corpas Pastor, G. & Duran-Munoz, I. (eds.) *Trends in E-tools and Resources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Leiden: Brill/ Rodopi, 153-174.
- Fantinuoli, Claudio. (2019) The Technological Turn in Interpreting: The Challenges That Lie Ahead. Available at [taff.uni-mainz.de/fantinuoli/download/publications/The%20technological%20turn%20in%20interpreting%20-%20the%20challenges%20that%20lie%20ahead.pdf](http://taff.uni-mainz.de/fantinuoli/download/publications/The%20technological%20turn%20in%20interpreting%20-%20the%20challenges%20that%20lie%20ahead.pdf).

[인터넷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Abstract]

###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Chinese Studies on the Technological Turn in Interpreting

Chang, Aili  
(Ewha Womans University)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machine translation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advances in voice recognition technology, and the complete replacement of interpretation sites with remote platforms in the Covid-19 pandemic period, a “technological turn” in interpreting is happening faster than ever before. In response, this study intends to comparatively analyze research trends in Korea and China that reflect the “technological turn” in interpreting, thus obtaining implications for practical interpretation and relevant research in Korea. In this study, research data on interpretation have been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technology-assisted interpretation education; technology-mediated interpreting; technology-supported interpreting; machine interpretation; and technology-based research on interpretation. In addition, through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of research literature, this study has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i) improve the quality of domestic research on interpretation technology based on its quantitative growth; ii) develop innovative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to strengthen the “realistic aspects” of interpreting in technology-assisted interpretation education; and iii) facilitate research on computer-assisted interpreting (CAI) and interpretation corpuses.

▶ Key Words: interpreting, technological turn, computer-assisted interpreting (CAI), technology-assisted interpretation education, technology-based research on interpretation

▶ 주제어: 통역, 기술적 전환, 컴퓨터보조통역(CAI), 통역 교육, 통역 연구

장애리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통역번역학과 조교수

[ailli@ewha.ac.kr](mailto:ailli@ewha.ac.kr)

관심분야: 지역사회통역, AI통번역, 기계보조통역,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논문투고일: 2021년 8월 6일

심사완료일: 2021년 9월 3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14일